

「학교설계시스템」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
-Design System

류재경 / 우성건축사사무소
by Ryu Chae-Kyeong

종래 학교건축의 획일적이고 고정 관념적인 건축환경을 탈피하여 재미있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관공정부는 물론 일선 담당자, 건축인들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주변의 어두운 분위기를 밝게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각 사회단체와의 편한 연결고리를 마련해 주는 현실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은 경험이 준 지혜로 좋은 습관은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때 작은일부터 하나씩 경험을 쌓아야 몸에 배게 됨을 이른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주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나, 우리의 지나친 교육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지식만을 위하는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기 쉽고 지나친 경쟁심을 부추기므로서 인성을 메마르게 해왔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학원 폭력예방을 위하여 각계에서 문제점 도출과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고, 학교는 학내·외 구분으로 “소집단 학습법, 탐구학습법, 우리말 순화지도, 방과후 일과표” 등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교직원이 술선수범함으로써 음지에 들어가 불량학생화 되어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모습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본인이 설계한 학교 공사가 막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이라 더욱 가슴이 답답하여 학교 설계시스템의 문제점을 검색하고자 한다.

학교시설·설비 기준령의 현실반영 개정촉구

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을 정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이 1992년 10월 1일(대통령령 제13,735호)이다.

국제화 되어가는 우리의 의식주로 인하여 우리의 학생들은 체격등위가 크게 향상되어 매년마다의 개정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본다.

신도시의 출현으로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고 있는 교지는 학교의 성격에 관계없이 10,000~15,000m² 규모로 한정 되어지고, 그 주변은 콘크리트 아파트 숲으로 먼저 채워지고 있다.

우리 건축사들은 확장불가능한 그곳에 요구조건인 24~30학급 이상을 거의 수용에 가깝게 끼워넣는 식의 계획으로 일관해온게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무소들의 한결같은 아쉬움의 목소리라는 것을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특히 체육장 시설의 설계제시 조건에 부지가 협소하나 규모에 관계없이 배치하라는 애매한 처리를 지시받을 때면 중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만 남는다.

표준 설계도서 운영의 모순성

1995년 10월 17일(건설교통부령 제35호) 개정된 건축사법 시행규

칙 제15조의2 「소속기관의 범위」에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도 기관마다 소속된 건축사로 하여금 그 기관이 시행하는 설계또는 공사감리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건축문화 창달의 소명을 고용 직원 몇명에 의해 수행토록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교육청의 설계도서 작성 조건에 “공개 및 발표금지” 라는 조항을 넣어 우수한 설계요소들의 검증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은 철저히 규명하여 삭제해야 할 것이다.

교실환경 계획에 대한 창안 및 연구내용 보급 문제점

본인이 설계한 프로젝트는 조건으로 제시된 공무원 창안제도 「난로없는 교실」의 채택(연구소 및 학회에 열적 성능과 경제성 입증으로 보급) 방안을 활용할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어 기존 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현실감 있는 교실 환경 개선 요소를 반영시켜 그나마 발전된 디테일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창안자 임복규 선생에게 감사하는 바이다.

「난로없는 교실」의 창안 요지는 첫째로 태양열 이용으로 면학분위기 향상 및 시설물 사후관리가 용이한 점, 둘째로 터널식 무량관 구조화로 층고와 용적의 절감, 셋째로 단열 철재단창으로 이중창 효과를 볼 수 있어 겨울철 난로걱정을 안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1990년 문교부 정책과제 「국민학교 건축 계획 모형연구」의 시범학교로 설정된 「전주 중산국민학교」프로젝트가 최근 공개되면서 더욱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연구를 통한 새로운 설계요소를 공포하지 않고 몇몇 교육청의 부분적 실시만을 거듭하고 있는 시행착오에 두려워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전주 중산국민학교」 계획요지는 첫째로 학년별 특성에 따른 공간의 분리구성으로 마당화를, 둘째로 특별교실의 유기적 구성으로 집중현상을 방지하고, 셋째로 의식조사를 통하여 그들이 선호하는 형태와 색채를 적극 고려해 사용하고, 넷째로 자유스런 곡선진입로를 도입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연구 보고서를 적극보급하였다면 좀더 많은 학교가 좀더 환경이 개선된 면학 분위기를 이루었으리라 본다.

표류하는 학교 체육으로 건강한 사고저해

1995년 12월 6일 인천일보의 교육기사 내용중에 나

타난 인천광역시 학교체육시설 현황에서 국민학교는 1.8%, 중학교는 4.6%, 고등학교는 22.7%로 그나마 정식 경기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관이 고작 5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점으로 각학교 특별활동은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엄청난 현실을 그대로 방관하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모두가 반성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검토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 가정, 사회는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복돋아 주어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체육관 건립을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1952년 영국건축가협회(RIBA)가 제정한 「가장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유익한 학교 디자인의 연구서」와 같은 효과적인 지침서를 마련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1990년 문교부에서 검토한 「건축계획, 설계기준과 공간계획 기본모델」을 기초한 내용에 각종 창안사항 및 논문을 수집 분석하여 우리 현재 실정에 맞는 경제적인 「학교 디자인 계획서」를 제정 보급하고, 이를 시행하는 담당자들의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래 학교건축의 획일적이고 고정 관념적인 건축환경을 탈피하여 재미있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관련 행정부처는 물론 일선 담당자, 건축인들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준공후 건물 분위기에 맞지 않는 기물과 짐기들이 배치됨으로써 애써 계획하고 설계한 취지를 무색케 할 때 우리 건축인들이 느끼는 당혹감이 더이상 기억으로 남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래본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안들을 제정보급하고 안성맞춤의 의도속에 학생들의 터전이 마련된다면 주말에 운동장만 개방하는 서로 못믿는 풍조는 사라질 것이며 충분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안동 「하회마을」과 같은 독특한 동네 문화가 정착되리라 확신한다.

우리주변의 어두운 분위기를 밝게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각 사회 단체와의 편한 연결고리를 마련해 주는 현실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